

청소년 지도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경험

공은선* · 최나연**

I 알기 쉬운 개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성소수자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정확한 인구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공공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6명의 청소년 지도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경험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1)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의 어려움, (2)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3) 청소년 성소수자의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과 사회 변화의 필요성. 학문적으로는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더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 상담자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편견과 특권을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회 내 소수자에게 세이프 스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제도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다양성과 관련된 태도와 소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단국대학교 문화와상담연구실 연구원

**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choina@dankok.ac.kr

투 고 일 / 2022. 6. 7.

심 사 일 / 2022. 8. 5.

심사완료일 / 2022. 8. 16.

DOI/10.14816/sky.2022.33.4.115

I 초록

UN 인권 이사회의 지속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등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가 당연한 삶과 어려움을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만연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는 상담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에 있어 청소년 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공 영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년 이상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에 종사한 6명의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질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총 119개의 의미단위, 3개의 대주제, 10개의 중주제, 28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계맺음의 어려움, 불안정하고 지지적이지 않은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성장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구조적 및 개인 내적인 변화와 역량을 명료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 성소수자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지도자, 다문화

I. 서 론

한국의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성인의 60%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이웃에 거주하는 상황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한국 내에서 성소수자가 당면한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United Nations [UN], 2014).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철회(김보명, 2020), 부서관 성 전환 사건(김용민, 2020) 등 국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처한 사회 구조적 차별의 경험을 드러내며 그들의 삶과 어려움을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먼저 성소수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소수자(Sexual and Gender Minority)는 성적 지향의 차원에서 이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이성애자와 달리 동성 또는 양성에게 정서적이거나 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이들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Yi, Lee, Park, Choi & Kim, 2017), 신체가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남성 또는 여성의 특성을 갖지 않는 사람, 트랜스젠더, 자신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지칭을 거부하는 이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O'Malley & Holzinger, 2018). 청소년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자각하는 연령은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Henderson, 1998; 강병철, 김지혜, 2006), 발달단계 상에서 청소년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성인기의 그것과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 집단에 비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Institute of Medicine[IOM], 201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19), 한국 내에서도 성소수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동 분포를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모두 일반인구 대비 높은 우울과 자살 사고, 신체적 질병 차원에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Lee et al., 2017). 이러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에서는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적 경험과 지지적인 요소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험을 조명한 몇몇 국내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폭력, 사회적 낙인, 차별 등의 내용과 양상이 어떠한지를 상세히 보여주었다. 주재홍(2017)은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족생활 및 학교생활 장면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들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조롱과 폭력의

대상이 됨으로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지영(2020)은 아웃팅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소수자 청소년 A에 대한 심리부검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과 낙인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밝혔다.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민간위기지원센터인 평동 또한 2016년 발간한 청소년 성소수자 기초조사를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배척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또래집단 및 가정과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차별적인 경험을 누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사회 구조적 차별이 예외가 아닐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만연한 차별과 혐오, 배제를 경험하기에 지지적인 인간관계와 안전한 지원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김현주, 노자은, 정성조, 정용립, 2020) 또한 공공 영역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여러 공공 서비스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대안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점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상담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깊은 불신과 거부감, 상처 받았던 경험 등을 호소한다(김지혜 외, 2016; 주재홍, 2017; 김현주 외, 2020). 이처럼 청소년 성소수자가 편안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김지혜 외, 2016; 정민석, 2018; 김현주 외, 2020; 박지영, 2020). 특히 김시은(2017)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의 부재를 지적하며, 법·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춘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외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다수의 노력이 있어왔다. 미국의 경우 SMYAL¹⁾(Sexual Minority Youth Assistance League), TREVOR Project²⁾ 등 정부의 지원과 시민사회의 후원을 바탕으로 각 지역 별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어려움을 조력하고자 하는 공공 및 청소년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영국의 경우 전국에 4개의 지부를 둔 AKT(Albert Kennedy Trust)와, 지역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BeYou Project 등이 있다. 특히 영국 남부의 서리Surrey 카운티는 시 의회 홈페이지³⁾에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인 Twister를 소개하며,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지원 정보를 명시하는 등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부터 청소년 성소수자

1) <https://smyal.org/>

2) <https://www.thetrevorproject.org/>

3) <https://www.surreycc.gov.uk/children/support-and-advice/families/support-and-advice/young-people/lgbt-support>

네트워크 Lambda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교육 및 청소년부 의원들의 정파를 떠난 연합을 통해 베를린에 최초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센터가 개소되기도 하였다.

국내의 경우 청소년 성소수자를 구체적인 사업 대상으로 명시하는 공공사업은 2022년 현재, 2019년부터 시작된 A시 산하의 B사업이 유일하다. 비영리민간사업의 경우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동(이하 평동)이 201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사업의 경우 2021년 기준 연 334회의 상담지원 서비스와 152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의료·생계 등의 영역을 망라하는 개인 맞춤형 위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사업인 평동의 경우 2021년 기준 165명의 내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225건의 위기지원이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더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법·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진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전의 선행 연구와도 그 맥을 함께한다(김시은, 2017).

한국의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김태균, 2020). 김윤나(2018)는 청소년 지도자의 업무는 사회 및 공공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지위와 관심사에 대한 작업을 포괄하며, 특히나 이들이 소외나 배제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여 이들을 조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 이주 노동자 가정에 대한 한정적인 지칭에서 인종과 민족을 넘어 젠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계층, 장애, 연령, 종교 등을 포함하는 다양성의 의미로 이해됨에 따라(변상우, 2020), 청소년 지도자의 전반적인 다문화 역량과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류태경, 박승곤, 문성호, 2017).

그러나 청소년 지도자의 성소수자 집단을 포괄하는 다문화 역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반면 상담 영역에서는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상담자의 인지나 태도 등에 대한 연구, 성소수자 내담자의 상담 경험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우사라, 2015; 박수영, 공옥춘, 정윤경, 2018;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특히 이주영, 윤은희와 이아라(2020)는 한국 상담자의 LGBT 내담자 상담역량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였고, 김정남(2022)은 한국형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지원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유하은과 권경인(2020)의 경우 성소수자 상담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일대일 개인 상담 장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상담자의 어려움만이 규명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상담 장면에서 한정된 연구 결과는 청소년 지도자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는데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 지도자의 업무 특성과 이들이 만나는 청소년에 대한 복합적인 특성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과 곤란, 스스로 느끼는 부족함과 아쉬움, 보람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이하 B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업무 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다문화 역량 발달의 기초 자료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자가 겪는 어려움, 관련된 이슈 그리고 고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지원에서의 사회 구조적 차별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공공 영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을 파악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여 현상의 본질을 밝히고자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 질적 연구이다. 이에 공공 영역에서 2019년 최초로 청소년 성소수자 사업을 시작한 B사업의 종사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목적론적 표집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B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기관에 게시하여 자발적인 연구 문의 및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적절한 연구 참여자의 수와 관련하여 Polit와 Beck(2012)는 현상학적 연구의 샘플링은 가능한 작고, 의도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현상학적 연구에서 많은 수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응답자의 진술을 깊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Fink, 200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총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연령과 지정성별⁴⁾은 다양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사회

4) 지정성별(Sex Assigned at Birth)이란 출생 시 의사 등에 의해 해석된 성별로 출생증명서 등의 문서에 기록된 성별을 의미한다. 기존의 이문법적인 성 지정이 임의적인 할당임을 표현하고, 포괄하지 못하는 성 정체성이 있음을 환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대신 '지정성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참 여 자	연령대	지정 성별	성적 지향	교육 정도	전공	종교	청소년 기관 근무 경력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경력	관련 자격증 유무
A	40대	남성	이성애자	학사	청소년학	무교	약 17년	2년 4개월	청소년 지도사 1급
B	20대	남성	이성애자	학사	청소년학	기독교	약 4년	1년 10개월	청소년 지도사 2급
C	30대	여성	이성애자	학사	청소년학	무교	약 13년	2년 4개월	청소년 지도사 2급
D	20대	여성	이성애자	학사	특수 교육학	천주교	약 6년	1년 9개월	청소년 지도사 1급
E	40대	여성	이성애자	석사	청소년 교육상담학	무교	약 8년	1년 6개월	청소년 상담사 2급
F	20대	여성	이성애자	석사	상담학	무교	1년 6개월	1년 6개월	청소년 상담사 2급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P01-202105-22-007)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면담 시작 전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부작용 등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면담 이후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반구조화 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장소의 경우 COVID-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구 참여자 1명을 제외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기관 내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은 한 사람 당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전사 이후 명료화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문의하였다. 면담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의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경력에 대한 기본 정보(현재 직무, 경력 사항, 근무 계기 등)에 대한 질문과 현재 지원 사업에서의 에피소드(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 보람과 어려움, 전문가로서의 역량 발달 등)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영역의 지원 사업에 함께 종사해 온 청소년 지도자의 공통 속성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현상학적 방법 중에 Giorgi의 분석방법을 택하였다. 특히 이남인(2005)이 Giorgi가 1975년과 1985년에 각각 제시한 단계를 재구성한 5단계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준수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에 의해 기술된 경험의 총체적인 의미 파악을 위해 자료 전체를 여러 차례 정독하였다. 둘째, 연구 자료 전체를 반복적으로 천천히 읽으며 의미단위를 구별하였다. 셋째, 중첩되는 의미단위들을 하나의 의미단위로 바꿔나갔으며 중첩되지 않은 의미단위들을 명료화 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반성과 자유변경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 묶음으로 환원하였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의미단위를 종합하며, 청소년 지도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운영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참여한 연구자 중 1명은 상담전공 교수로, 다문화 및 성소수자를 주제로 다수의 연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질적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를 진행해왔다. 또 다른 연구자는 연구 설계와 면접 과정 전반 및 자료 분석에 참여하였으며 상담 전공 석사 학위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갖추고 2년 이상 청소년 상담 실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워크숍을 수강하였으며, Giorgi의 접근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현상학 관련 서적과 질적 연구 논문을 살피며 이론적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4.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연구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Lincoln과 Cuba(1985)가 제시한 네 가지의 준거인 진실성, 적용 가능성, 중립성, 일관성의 네 가지 개념을 준수하였다. 첫째, 연구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진실성 확보를 위해 전사록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둘째, 적용 가능성은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 외의 다른 청소년 지도자의 공감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립성 확보를 위해 괄호 치기와 판단중지(epoch)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와 성 소수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 2인의 피드백을 거쳐 지속적인 수정과 합의 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한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은 총 119개의 의미단위, 3개의 대주제, 10개의 중주제, 28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다(표 2).

표 2
청소년 지도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경험

	소주제	중주제	대주제
1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례의 부재로 인한 막막함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2	청소년 성소수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곤란함	지지적인 환경 조성	
3	사업 특색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관계 형성에서의 고민과 부담감	연계망 확보의 어려움	
4	사회적 합의와 지지의 결여		청소년 성소수자
5	사업을 둘러싼 비의도적인 차별	소외되고 차별받는	지원사업
6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의 저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운영의 어려움
7	혐오세력의 공격에 대한 종사자의 걱정과 고민	기독교 세력과 정치 세력에 대한 부담감	
8	청소년 성소수자가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을까 두려워 조심함	직업적 영역을 뛰어넘어	
9	이분법적 태도와 언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개인 삶의 영역으로	
10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줄고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시야가 확장됨	확장되는 성장	
11	가족, 보호자, 양육자, 복지사, 지지자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발달과	청소년
12	청소년 상담자와 지도자가 함께 일하며 시너지를 발휘함	협업을 통한 시너지	성소수자
13	청소년 성소수자가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갑옷에 대한 이해		지원사업
14	흔들리는 청소년을 지지하고 함께 동행하며 경험한 보람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관계맺음	운영 과정에서의
15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신뢰감을 형성하며 경험하는 보람		깨달음
16	청소년 성소수자가 경계를 내려놓고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느낌	세이프 스페이스(Safe Space)를 필요로 하는 성소수자	
17	개방적인 태도와 자기성찰을 통한 인식점검의 필요성		
18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적이고 혐오적인 인식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함	청소년 지도자의 자기성찰과	
19	성소수자가 질환이며 치료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함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의 필요성	
20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탈피해야 함	청소년 지도자의 자기성찰과	
21	개인의 편견 타파를 시작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청소년
22	성인지, 젠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성소수자의
23	특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4	성소수자와 관련한 활발한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	유관 교육의 필요성	요구되는
25	유관 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함		청소년 지도자의
26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역량과 사회
27	청소년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기관이 필요함	제도와 서비스,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변화의 필요성
28	성소수자의 존재와 어려움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		

1.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운영의 어려움

1)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지지적인 환경 조성 및 연계망 확보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지원 사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선례의 부재로 인해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에서는 준수하기 힘든 절차였다. 왜냐하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을 통해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청소년의 원치 않는 아웃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미성년자이며 동시에 성소수자인 청소년의 권리와 안전을 이중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나 그에 대한 선례와 합의가 없어 난항을 겪었다.

유사 사업에서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보호자 동의나 보호자와 같이 상담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팀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청소년이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성 정체성이나 지향을 커밍아웃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상담의 주제라면 부모 상담이나 동의를 얻어 진행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죠. (연구 참여자 F)

더불어 서비스 연계망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를 낯설어 하는 사회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타 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때에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가 이분법적인 관점을 택하고 있음을 깨닫기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을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설문지는 성별 표기란에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성이분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타 기관 선생님들을 연계 과정에서)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무지하다고 느껴졌어요. ‘전혀 경험해 본 적 없었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케이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느낌에 가까웠어요. 많은 기관을 만난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의 개인차가 컸던 거 같아요. 특히 이제 기관장의 태도나 우선하는 가치 등이 굉장히 주요한 변수였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E)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지원을 위해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함에 있어 기관장을 비롯하여 단체를 이끄는 리더의 편견이나 관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노라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보고 싶지 않다는 태도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사회적 차별의 일례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 구조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소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소외되고 차별받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연구 참여자들은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상황들로 인한 어려움 또한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의 어려움은 청소년 성소수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결여된 상황에서 촉발되기도 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둘러싼 비의도적인 차별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들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 그리고 실무자로서의 의욕이 저하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시의 의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이 사업이 노출되었을 때 이어질 민원이나 반대, 문제제기를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조심스러운 지점이에요. (연구 참여자 A)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도 언제든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경험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사업 홍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들은 채용 과정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즉 채용과 사업 연계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연구 참여자들이 센터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본의 아니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의 존재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어왔을 배제와 차별의 경험을 이들 또한 간접적으로 겪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저희 팀에 대한 소개 글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들어왔어요. 면접을 보고 나서 센터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대상이 청소년 성소수자다 괜찮겠냐,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구나. (연구 참여자 F)

3) 기독교 세력과 정치 세력에 대한 부담감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사업의 큰 위험 요소로 반동성애를 표방하는 기독교 혐오세력을 꼽았다. 혐오세력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이들은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들이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연구 참여자들 또한 혐오세력으로부터의 민원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그

로 인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혐오세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사회적 합의의 부족으로 통일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시 지자체나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혐오 세력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걸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E)

2.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의 깨달음

1) 직업적 영역을 뛰어넘어 개인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성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무지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의도치 않게 상처 입히지 않을까 염려했으나 동시에 이러한 염려가 오히려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표현했다.

제가 직접 만나기 전에 들었던 정보나 자료들을 통해서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상처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됐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A)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처 입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부분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가 ‘연약하다’는 편견에서 유래된 태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업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성적 다수로서의 편견을 줄이고 성소수자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 전까지 성소수자가 아닌 연구 참여자들은 성적 다수로서 성소수자의 경험이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무지의 사치(Luxury of ignorance)를 경험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교류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이나 말이 소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게 되며 자신의 특권(McIntosh, 1990)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죠. 내 주변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게이야? 레즈야? 이렇게 쉽게 말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누군가 (내가) 그 말을 내뱉는 공간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C)

2)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발달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은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 지도사가 한 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을지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 또한 서로의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며 시너지를 경험하였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함에 있어 청소년 지도자에게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때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의식주를 살피며 그들의 양육자로서도 기능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적극적인 옹호자의 역할을 지향하면서도, 청소년이 주체성과 독립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지자 역할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노라 표현하였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담자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며 옹호자로서의 정체성 발달 또한 중요함을 드러냈다.

청소년들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들, 청소년들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면. 상담자가 함께 수행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옹호자의 역할. 그들이 주체성을 갖고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지지자의 역할을 더 해주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F)

3)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관계맺음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가 인권 등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사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프로그램 홍보물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인 피드백 환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관계 맺음에서 성정체성 및 지향이나 연령의 측면에서 소수자인 청소년 성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기 쉬운 위험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관심사나 의견을 겸손히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로그램) 홍보 메시지 하나를 쓸 때에도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거든요. 늘 표현에 문제가 없을지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보았을 때는 적절하지 못했던 경우가 더러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희에게 더 좋은 표현을 제안해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뭘까. 우리가 이들의 시각으로 생각하거나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늘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죠. (연구 참여자 B)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세상을 공격적이며 위협적인 공간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며, 이들이 입고 있는 갑옷과 경계심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여러 고민과 난관 속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지지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신뢰감을 표현할 때, 그들이 한 단계씩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무엇보다 큰 보람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중첩적인 위기와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려 하면,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다를 수 있을 거 같아요. 가령 그건 모든 위기 청소년들이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훨씬 더 강한 갑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기에는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공격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떤 노력마저도 이들의 맥락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연구 참여자 E)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임을 이해하였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사회의 소수자로서 항상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하며, 비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는 일이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함을 알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일궈나가고 있는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다 더 크게 경험하였다.

청소년들이 와서 내가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좋아요. 집보다 편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쓸쓸하지만,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청소년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3. 청소년 성소수자의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과 사회 변화의 필요성

1) 청소년 지도자의 자기성찰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지도자는 개방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의 편견을 살펴야 한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편견에는 성소수자 정체성은 병리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성장과정에서 변화될 것이라는 주장, 치료를 통해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등이 포함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염려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과거 상담 과정에서 니가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병이다 이거는 고쳐야 한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친구들이 더러 있었어요. 성 인지 감수성이 나 민감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걸 갖춰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청소년 성소수자, 성소수자 내담자군에게 상담자가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지도자가 인권이나 다양성 등 유관 교육을 수강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지식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나 소양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요구하였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 센터 등 여러 시설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고 있겠지만 아마 잘 알지 못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상처 받는 경우도 있고, 상처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청소년 지도사도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에 대한 어떤 열린 태도나 마음가짐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A)

2) 제도와 서비스,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지원 시스템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소수자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권(Privilege)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특권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태생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및 사용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McIntosh, 1990). 특권은 사회적 정체성에서의 주류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 및 자원인 까닭에 사회구조적으로 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행사되기 쉽다(Black & Stone, 2005; McIntosh, 1990). 이에 서비스 제공자들 또한 자신의 특권을 성찰하고 인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였다.

지금은 (기관 종사자) 필수 교육에 이런 내용(젠더 감수성, 민감성 등)이 전혀 없어요. 아동 성범죄 신고 의무제도, 안전지도 같은 건 받지만 젠더 감수성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필수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연구 참여자 E)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차별이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경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소년 성소수자가 어디든 편하게 도움을 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 중에 많은 부분은 가정으로부터 부정당하고, 집을 떠나며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경우 쉼터를 가지 못해서 지인의 집에서 살거나 머무르면서 간혹 생계를 위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든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걸 보게 되어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청소년 쉼터는 꼭 시급하게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 참여자 A)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이자 성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가장 우선이며 기초 과제로 꼽았다. 무엇보다 사회의 시스템도 이들의 존재를 당연히 인정하고 가시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서행동 검사를 보면 우울이나 불안, 자살사고 이런 건 체크할 수 있는데, 내가 청소년기에 성적인 정체감이나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건 체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자신들은 음지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회가. 학교도, 청상복도 그렇고,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존재하면 안 된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니 더더욱 청소년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라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E)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에 종사한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에 종사한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은 119개의 의미단위, 28개의 소주제, 10개의 중주제, 3개의 대주제로 도출되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경험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 영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한 전례가 없었으며, 기존의 위기 청소년 지원 기준과 시스템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어려움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다. 특히 쉼터 연계가 절실한 사례의 경우에도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과 지향에 따라 쉼터가 경험하는 부담이 있음을 당면하였고, 이로 인해 쉼터와 청소년 성소수자 사이를 중계 및 중재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위탁한 시 지자체

의 소극적인 태도와 혐오세력의 공격에 대한 염려는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가증시켰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이성애중심주의적 (heteronormativity), 구조적 (systematic), 기관적 (institutional) 차별을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체계 자체의 부족의 한계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로 인한 차별의 영향을 이해하게 되어 비판적 의식 (critical consciousness)을 높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hin, Ezeofor, Smith & Welch, 2016).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과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보람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상담사와 지도사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함에 있어 때로는 부모로서, 형제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지지자로서 다양한 역할이 필요함을 깨닫고 사회 정의 옹호자의 정체성을 확대해나가기도 하였다(임은미, 2017).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이성애자로서의 특권을 마주하고 성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 성소수자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상하며 성소수자의 경험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다. 이러한 인정은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 자신의 특권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장면에서도 성소수자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등 자신의 깨달음을 직업적 영역에서 보편적 삶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변화는 젠더 감수성이 진화하는 과정으로도 보인다. 임혜숙(2021)은 젠더 감수성을 젠더 이슈를 인식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자신과 다른 성을 가진 이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내제된 일상적인 성차별주의와 고정된 젠더 이분법적 생각을 감지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규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만남을 통해 젠더 감수성을 함양해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며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세이프 스페이스(safe space)의 존재를 꼽았다. 세이프 스페이스란 개인 및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차별이나 비판, 괴롭힘 또는 정서적이거나 신체적인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을 의미한다(Oxford Dictionary, n.d.). 이들이 운영하는 공간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이었다. 한국 성소수자 대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본 현상학적 연구에서 세이프 스페이스는 학생들의 '숨 쉴 구멍'이었으며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장소로서 소개되었다(Choi & Oh, 2021). 성소수자 대학생들은 지역사회와 교육체계에서 세이프 스페이스가 꼭 필요한 공간이라 밝혔는데,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편안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는 선행 연구들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김지혜 외, 2016; 정민석, 2018; 김현주 외, 2020; 박지영, 2020).

셋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청소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젠더 감수성, 성 인지, 특권에 대한 이해, 비판적 의식, 사회정의 옹호자 정체성, 세이프 스페이스의 이해 등 적극적인 유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차별 금지법의 제정 등 우리 사회의 제도가 성소수자를 가시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에 대한 제언은 학문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학문적 영역과 관련하여 첫째로는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한 다양하고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였으나(강병철, 김지혜, 2006), 최근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정, 학교, 청소년 기관 등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발달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조차 파악하기 힘든 구조적 현실에서 공공의 청소년 시설 등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 또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체성이나 발달 뿐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및 지원 과정에 있어 필히 다뤄져야 할 내용이 심층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이나 관계형성에 있어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도 같은 경계심을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이처럼 청소년 성소수자와의 상담 시 고려되어야 할 상황 및 다문화적 기술,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실천적 영역과 관련하여 개인내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개인외적 측면에서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내적 측면과 관련하여 첫째,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부지불식간에 드러날 수 있는 편견과 특권 등을 미연에 살피고 성찰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다문화 소수 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박정은 외(2019)에 따르면 성소수자 내담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힐 수 있는 안전한 장면을 찾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편견과 특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안전한 세이프 스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청소년 성소수자 내담자가 느낄 수 있는 사회구조적 차별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비판적 의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구조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는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통해 상담자가 사회구조적인 억압과 불평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이다(김태선, 신주연, 2020).

또한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다양성에 대한 태도와 소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2021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제출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모두 지난 5년 간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대한민국국회, 2021).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21년 공개한 한국 내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실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 전반에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혐오, 시스템의 한계 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유관 기관과 인력이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성소수자가 처한 위기에 응답해야 한다는 휴먼 라이츠 워치(2021)의 권고 사항을 고려한다면 관련 교육은 무엇보다 절실한 사항이라 하겠다. 또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둘러싼 편견을 타파를 목적으로 다양한 캠페인이나 아웃리치 등을 수행하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성 정체성과 지향은 모두 헤테로 시스젠더⁵⁾로 성 정체성과 지향의 차이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와 초기 라포를 형성하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었다. 자신을 성소수자로 정체화한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며 경험하는 양상은 비성소수자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을 살피는 연구들은 청소년 지도자의 다양성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자인 청소년 지도자의 이야기만을 살폈다는 한계가 있다. 같은 상황이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인 청소년 지도자의 해석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상담 영역의 경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성소수자의 경험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박정은 외, 2019; 이주영, 이아라, 윤은희, 2021), 청소년 성소수자의 청소년 시설 이용 경험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험에 대한 조명이 보다 더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따라 성소수자 간에도 그 경험이나 인식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커뮤니티 참여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한 손소연과 이지하(2016)의 제언처럼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삶의 현주소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지향과 정체성, 연령 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헤테로 시스젠더는 시스젠더(cisgender)와 헤테로 섹슈얼(heterosexual)의 합성어이다. 이때 시스젠더는 심리적 성별(Gender)와 법적 성별(Sex)이 일치된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헤테로 섹슈얼의 경우 자신과 성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 혹은 성적 끌림을 느끼는 성적 지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의의는 이하와 같다. 첫째,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자 개개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한국 사회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으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료화 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구체적인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은 청소년 지도자와 상담사를 위한 교육 과정과 슈퍼비전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 과정의 발전 과정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가 당면하고 있는 차별과 구조적 불합리를 단면적으로 드러냈고, 전문가의 역량 개발만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변화 또한 필요함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병철, 김지혜 (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연구보고 06-R1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보명 (2020). '여성공간과 페미니즘' -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1, 83-118. doi:10.35419/kmlit.2020..71.003
- 김시은 (2017).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공익과 인권**, 17, 3-47.
- 김영한, 이유진, 조아미, 임성택 (2020).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연구보고 20-R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용민 (2020). 성전환 수술 부서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법학논총**, 27(1), 225-264. doi:10.18189/isicu.2020.27.1.225
- 김윤나 (2018). Youth Work와 Youth Worker에 관한 개념적 고찰. **시민청소년학연구**, 9(2), 5-38.
- 김정남 (2022).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매뉴얼 개발.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8(2), 115-125. doi:10.47116/apjcri.2022.02.10
- 김지혜, 나영정, 류은찬, 박지영, 이인섭, 정민석 (2016).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Q로 만드는 울타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웹사이트 http://www.ddingdong.kr/xe/download/DDingDong_Interview.pdf에서 2021년 10월 11일 인출.
- 김태균 (2020). 청소년지도자 역량에 관한 연구: 청소년지도자, 예비청소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시설환경**, 18(1), 89-100.
- 김태선, 신주연(2020). 다문화 시대의 상담자 교육: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67-692. doi:10.23844/kjcp.2020.05.32.2.667
- 김현주, 노자은, 정성조, 정용림 (2020).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립드림센터.
- 나장함 (2010).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종합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3), 21-41. doi:10.15753/aje.2010.11.3.002
- 대한민국국회 (2021). **2021년도 국정감사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웹 사이트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에서 2021년 5월 14일 인출.
- 류태경, 박승곤, 문성호 (2017). 청소년 지도사의 다문화 역량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 문화포럼**, 50, 31-57. doi:10.17854/ffyc.2017.04.50.31

- 문호영 (2015). 청소년지도자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조직 발전가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119-134.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보고서 번호 11-1371000-000828-01).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동성애 및 양성애자 내담자의 상담 참여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상담학연구**, 19(3), 367-383. doi:10.15703/kjc.19.3.201806.367
-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동성애자 내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997-1021. doi:10.23844/kjcp.2019.11.31.4.997
- 박지영 (2020). Why did Homosexual Youth, “A” Commit Suicide?: The analysis of A’s behavioral decision process and school bullying through Qualitative Psychological Autopsy. **청소년복지연구**, 22(4), 1-36. doi:10.19034/KAYW.2020.22.4.01
- 변상우 (2020).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 배경에 따른 내담자 평가와 역전이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147-172. doi:10.23844/kjcp.2020.02.32.1.147
-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 혐오반응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 손소연, 이지하 (2016).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참여 의미에 대한 연구: Giorgi 현상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2), 233-256. doi:10.20970/kasw.2016.68.2.010
- 우사라 (2015).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에 대한 유능감에 따른 상담자의 반응 및 임상적 판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하은, 권경인 (2020). 성소수자(LGBT) 상담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간이해**, 41(1), 91-115. doi:10.30593/JHUC.41.1.5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경기: 한길사.
- 이주영, 윤은희, 이아라 (2020). 한국 상담자의 LGBT 내담자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1(2), 339-359. doi:10.15703/kjc.21.2.202004.339
- 이주영, 이아라, 윤은희 (2020). 성소수자 내담자 대상 상담에서 상담자가 인식하는 어려움과 도움요인. **아시아교육연구**, 21(2), 231-266 doi:10.15753/aje.2020.06.21.2.577
- 임은미 (2017).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 (SJACS-K) 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6), 17-36. doi:10.15703/kjc.18.6.201712.17
- 임혜숙 (2021). 젠더 감수성에 대한 개념분석. **인문사회**21, 12(5), 505-518. doi:10.22143/hss21.12.5.36

- 정민석 (2018). 사회복지와 성소수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사회복지가 말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 인권을 다시 묻다**, 57-60.
- 주재홍 (2017).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3(1), 175-215. doi:10.24159/joec.2017.23.1.175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doi:10.23844/kjcp.2018.05.30.2.249
- 휴먼 라이츠 워치(2021).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휴먼라이츠워치 웹사이트 https://www.hrw.org/sites/default/files/media_2021/09/southkorea0921kor_web.pdf에서 2021년 5월 14일 인출
- Black, L. L., David, S. (2005). Expanding the Definition of Privilege: The Concept of Social Privilege.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Development*, 33(4), 243-255. doi:10.1002/j.2161-1912.2005.tb00020.x
- Choi, K. M., & Oh, I. (2021).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Sexual Minority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9(4), 225-238. doi:10.1002/jmcd.12227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2nd ed.). California: Sage.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Fink, A. S. (2000). The role of the researcher in the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A potential barrier to archiving qualitative data.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3).
- Giorgi, A. (1975).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 Psychology. In A. Giorgi, C. Fishcer., E. Murray (Eds.), *Duquesne Studies in Phenomenological Psychology II* (pp.72-75).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Henderson, M. (1998). Disclosure of sexual orientation: Comments from a parent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3), 372-375. doi:10.1037/h0080346
- Institute of Medicine(IOM) (2011). The health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Building a found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Institute of Medicine*.

- Retrieved December 15, 2021, from <https://www.nap.edu/catalog/13128/the-health-of-lesbian-gay-bisexual-and-transgender-people-building>.
- Lincoln, Y. S.,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lifornia: Sage.
- Meads, Hunt, Martin, & Varney. (2019). A Systematic Review of Sexual Minority Women's Experiences of Health Care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7), 30-32. doi:10.3390/ijerph16173032
- McIntosh, P. (1989, July/August). White privilege: Unpacking the invisible knapsack. *Peace and Freedom Magazine*, pp. 10-12,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Philadelphia. doi:10.4324/9781351133791-4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A Spotlight on LGBT People. *OECD*. Retrieved December 20, 2021, from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soc_glance-2019-en.pdf?expires=1610938189&id=id&accname=guest&checksum=9F56D63F8338E64E407B2EB2BEB32A29.
- O'Malley, J., Holzinger, A. (2018). Sexual and gender minoriti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Retrieved December 15, 2021, from <https://dpcpsi.nih.gov/sgmro>.
- Oxford Dictionary. (n.d.). Safe Space. In Oxford Dictionary. Retrieved May 13, 2022, from https://www.lexico.com/definition/safe_space.
- Polit, D. F., Beck, C. T. (2012). *Nursing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9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Shin, R. Q., Ezeofor, I., Smith, L. C., Welch, J. C., & Goodrich, K. M. (201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ntemporary Critical Consciousness Mea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2), 210-223. doi:10.1037/cou0000137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2014).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No. CCPR/C/KOR/CO/4). *UN General Assembly Documentation*. Retrieved May 14, 2022, from <https://undocs.org/CCPR/C/KOR/CO/4>.
- Wurtele, S. K. (2017).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youth. *Reference Module in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Psychology*, 1-30. doi:10.1016/b978-0-12-809324-5.05192-0

Yi, H., Lee, H., Park, J., Choi, B., & Kim, S. S. (2017). Health disparities betwee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Rainbow Connection Project I. *Epidemiology and health*, *39*, e2017046. doi:10.4178/epih.e2017046

ABSTRACT

Experiences of Korean youth workers working in the sexual minority youth support service

Gong, Eunseon* · Choi, Na-Yeun*

Korean society is facing a need to spotlight the lives and difficulties of sexual minorities, which has been spurred on by increased social awareness of such issues. There are a number of prime movers behind this, one example amongst many is the UN's pressure for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o be ena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Due to prevalent discrimination and biases in Korean society, sexual minority youth (SMY) have reported reluctance in utilizing public services like counseling services under this social and legislative climat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 of youth workers managing a government project supporting SMY in the public sphere. Semi-construct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participants who have worked on projects supporting sexual minority youth for more than one year.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approach, and 3 categories, 10 themes, 28 sub-themes, and 119 meaning units emerged. Even though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difficulties supporting sexual minority youth due to challenges in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SMY and also due to unstable and unsupportive working conditions, they have grown in expertise and developed a sense of pride through these experiences. Moreover, they elucidated much needed structural and individual changes and competencies through these experiences; which leave them better placed to support SMY in Korean society at large. Based on these findings, a number of recommend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to better and more actively support sexual minority youth.

Key Words: sexual minority youth, youth worker, multiculturalism

* Dankook University